

자활사업 유형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연구

김재호*

*청운대학교 융합경영학부

e-mail:jaehokim@chungwoon.ac.kr

A Study on the Types of Self-Supporting Business(Jahwal) and Job Creation Effect

Jae-Ho Kim*

*School of Integrate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자활기관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글로벌경제 위기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일자리의 부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에서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는 정책과 더불어 사회적일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경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중 초기 모델이지만 독특하게 진화된 자활조직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충남의 자활조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를 보면 자활기관 당 약 8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으며, 사업단과 기업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도·농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성과는 하이브리드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자활기관의 특성과 성과를 분석하여 취약계층의 욕구와 역량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활기관의 일자리 창출 프로세스는 매우 안정된 인큐베이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적 관점을 동시에 제공하여 일자리의 내재적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향후 하이브리드적 관점에서 지원하는 사회적일자리 정책이 나와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자활사업은 1990년대 초 주민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이니셔티브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유럽의 몬드라곤과 같은 협동조합형 일자리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자활의 개념을 갖추게 되고,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이끌었다.

더 나아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사회적경제가 시작되었고, 이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육성 방안이 제시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활은 말 그대로 탈빈곤율을 높여서 복지와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양극화의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활기관은 중앙의 한국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로 광역자활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 행정 단위별로 지역자활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자활기관은 취·창업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며 일자리를 하이브리드적으로 제공하고 한쪽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독특한 일자리 제공 형태이다. 을 활동을 하면서 일자리를 하이브리드(hybrid)하게 지원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각 지역자활은 산하에 사업단을 두고 사회복지사들이 참여자와 함께 운영하며 일자리를 제공한 후 2년 이내에 어느 정도 시장진입이 가능한 시점이 되었을 때 자활기업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각 지역자활은 산하에 사업단과 자활기업 및 인턴형 일자리 등을 운영하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 조건은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 향후 당분간은 시장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와 더불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활 단체 중 충남지역의 자활 현황을 분석하여 일자의 유형과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자활기업

자활기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지역 빈민운동을 중심으로 자조적 생산공동체·협동조합의 시도를 출발점으로 하여, 1990년대에 시작된 생산공동체운동의 과정을 거쳐, 2000년대 국민기초생활법을 기반으로 한 자활공동체로 변화되었다.[1]

자활사업의 뿌리는 1996년 시범 운영된 5개의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자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정무역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영역에 속하고 있다.

자활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각 광역 단위별로 광역자활조직이 있으며, 광역자활은 자활복지개발원에 인나 지자체 등을 모기관으로 하고 있다. 광역단위 아래로 각 지자체 별로 지역자활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자활에는 자조적 형태의 자활사업단과 사업단을 거쳐 자립한 자활기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중앙자활은 2019년 국민기초생활법 제15조 2에 의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변경하였다.

2.2. 충남지역 자활활동 현황 분석.[2]

충남(세종)지역의 자활 현황을 살펴보면 1개의 광역 자활과 17곳의 지역자활로 구성되어 있다.

자활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업단 현황

순서	유형	갯수	비율
1	예비자활기업	0	0%
2	시장진입형	34	21%
3	사회서비스형	82	51%
4	인턴유지형	19	12%
5	근로유지형	7	5%
6	게이트웨이	12	8%
7	기타	2	1%
합계		159	100%

충남자활의 현황을 보면 총 159개의 사업단에 1,267명이 참여자가 일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유형은 사회서비스형이며 모두 82개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중 사업단이 가장 많은 지역은 15개인 아산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3개인 계룡이다.

[표 2] 지역별 현황

순서	지역	자활기업	사업단	합계
1	계룡	0	3	3
2	공주	4	10	14
3	금산	3	5	8
4	논산	4	9	13
5	당진	2	11	13
6	보령	3	8	11
7	부여	2	8	10
8	서산	4	11	15
9	서천	4	7	11
10	세종	9	12	21
11	세종남부		12	12
12	아산	2	15	17
13	예산	3	9	12
14	천안	6	10	16
15	청양	3	7	10
16	태안	3	11	14
17	홍성	4	8	12
18	광역	3	0	3
합계		59	156	215

충남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개의 자활기관이 있다. 가장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역자활은 세종자활이며 모두 21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종자활은 가장 많은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자활기관은 아산지역자활이며 모두 15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의 자활기관은 평균적으로 15개의 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활기업을 살펴보면 충남의 자활기업은 총 59개이며 모두 752명이 일하고 있다. 자활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9개인 세종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당진, 부여, 아산이며 각 2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각 자활기업은 평균적으로 약 13명을 고용하고 있다.

[표 2] 업종별 현황

순서	업종	자활기업	사업단	합계
1	게이트웨이		12	12
2	공예	1	4	5
3	근로유지		7	7
4	기타	2	10	12
5	누룽지	3	8	11
6	도우미		14	14
7	돌봄	8	3	11
8	매점		4	4
9	배송	5	8	13
10	세차	2	6	8
11	식기세척		3	3
12	식품	2	3	5
13	영농	1	9	10
14	외식	7	13	20
15	인턴		5	5
16	임가공		20	20
17	재활용		3	3
18	주거복지	17	1	18
19	청년자립		2	2
20	청소	6	10	16
21	카페	5	11	16
합계		59	156	215

충남자활[3]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활기업은 12개의 유형으로 모두 59개가 있으며, 사업단의 유형은 21개로 모두 156개가 있다. 이를 합치면 215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267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활기업은 주거복지 영역과 돌봄, 외식 등의 영역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업단은 조금 더 다양하게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단의 경우 임가공, 게이트웨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예, 돌봄, 식품 영역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커피, 청소, 외식, 배송 영역은 사업단과 자활기업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센터의 일자리 창출 유형과 효과를 살펴보고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충남의 자활기관의 일자리 유형과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활기관 한 곳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약 8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자활기관과 사업단의 일자리 제공을 비교하면 사업단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인건비의 지원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자활기업은 돌봄, 주거복지 영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사업단은 외식과 임가공 영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셋째, 충남 내 도농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농 간 확연히 구분되는 아이템의 차이도 도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템의 일반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의 초기 모형이지만 이후 나타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다른 유형으로 설계되면서 독특한 형태의 일자리 제공 모형을 가지게 되었다. 게이트웨이부터 시작하여 사업단을 거쳐 자활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매우 훌륭한 인큐베이팅 과정을 보여준다. 사회복지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형 모델이며 일자리 제공 형태도 취·창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의 유형 중 자활의 모형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향후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더 잘 증명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충남지역만을 단편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추세 분석을 한다면 더 좋은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경휘, 백하영.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유형과 특성 비교 분석." 한국사회정책, 제26권 2호, pp.115-145, 2019.
- [2] <http://www.kdissw.or.kr>
- [3] <http://cnpsc.or.kr/>

김재호 (Jae-ho Kim)

[정회원]



2014년.03월 청운대학교 창의융합대학 융합경영학부 부교수
2013년 08월 중앙대학교 박사(창업경영)

관심 분야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창업전략, 창업정책, 사회적경제